대한불교조계종 국제불교 소식지

世界一花

The Whole World is A Single Flower

불기 2556(2012)년 4월 14호

발행인 총무원 사회부장 혜경 | **발행처** 한국불교국제네트워크 | **편집인** 정범 | **편집장** 진서 | **편집위원** 권대식 윤명규 남춘호 선정화 | **전화** 070-7769-8985 | **편집 · 인쇄** 디자인 수

템플스테이, 핵안보정상회의에 불교의 향기 전해

각국 퍼스트레이디 잇단 방문, 다양한 전통문화 체험

▼ (좌)터키 총리 부인 봉은사에서 인경 체험 (우)이탈리아 총리 부인 봉은사 방문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지현)이 지난 3월 26~27일 열린 2012 핵안보정상회의를 맞아 3월 한 달간 정상회담 참가자 및 해외 언론을 위해 서울 봉은사, 강화 전등사에서 특별 템플스테이를 실시했다.

이번 템플스테이는 이 기간에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전통문화와 1,700년 한국불교의 역사를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되었으며, 정상회의 기간 동안 400여 명의 외국인 방문객과 세계 각국의 귀빈이 템플스테이 운영사찰을 찾았다. 특히 28일 오전 달리아 그리바우스카이테 리투아니아 대통령이 봉은사를 방문했다. 리투아니아 최초의 여성대통령인 그리바우스카이테 대통령은 12년 전 재무차관 시절 처음 방한했을 때도 한 사찰을 방문한 적이 있다며 한국불교와 인근 국가의 불교가 어떻게 다른지 질문을 하기도 했다. 또 각국 정상 부인들의 방문도 이어졌다. 26일 오전 터키 총리 부인 에미네 에르도안 여사가 내방한 데 이어, 26일 오후에는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부인 제트루드 반 롬푀이 여사가, 27일 오전에는 이탈리아 총리 부인 엘자 안토니올리 몬티 여사가 봉은사를 찾았다.

바쁜 일정 속에서 봉은사를 찾은 정상 부인들은 경내 곳곳을 둘러보며 이번 템플스테이를 통해 사찰투어, 인경, 다도, 참선 등을 체험하며 수행자들의 삶을 직접 경험해 보고, 불가의 전통과 정신문화를 만나는 시간을 가졌다. 에미네 에르도안 여사는 "서울과 같은 대도시 근처에 이렇게 조용하고, 편안한 곳이 있다는 것이 참으로 놀라웠다. 한국에 있는 동안 최고의 추억으로 기억될 것 같다"는 등 터키와 한국의 예법이 비슷해 더욱 친숙하다며 소감을 전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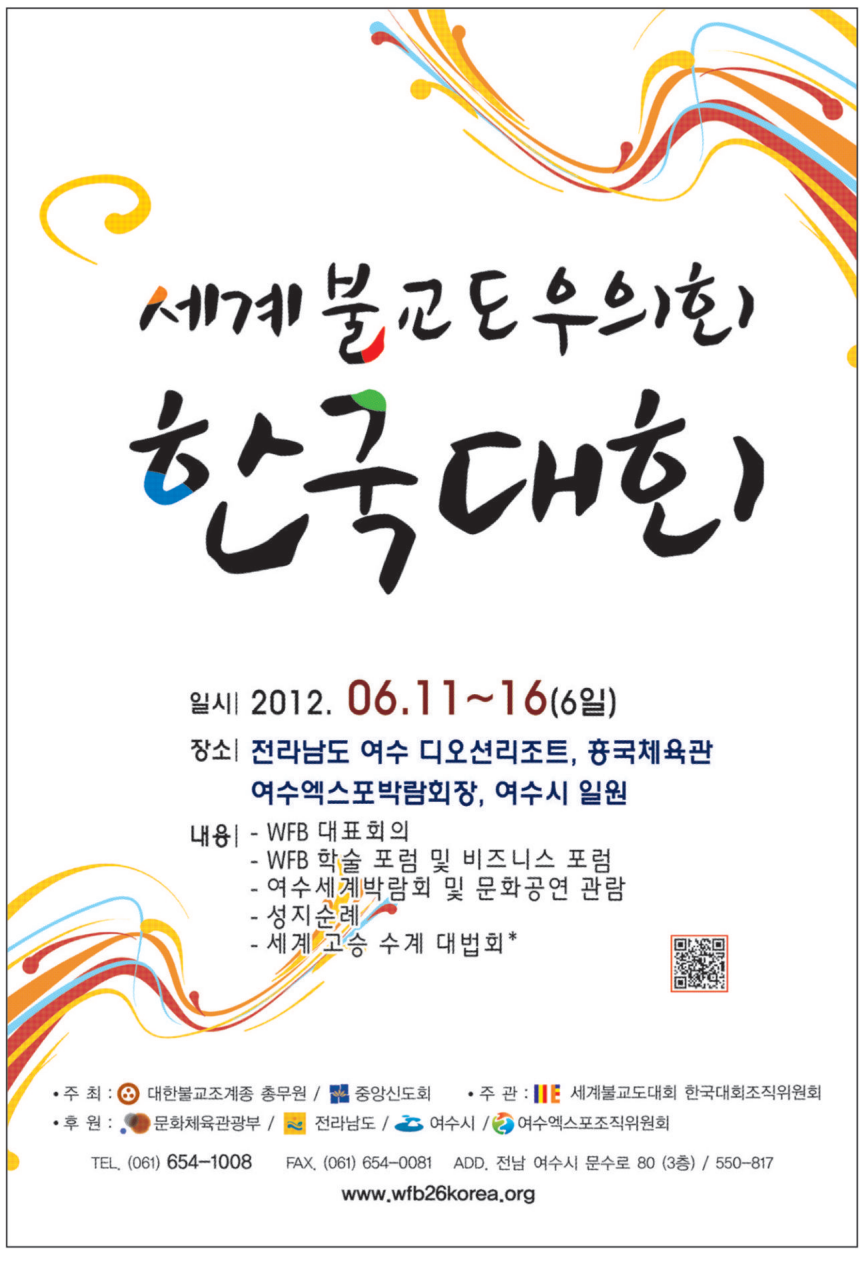
한국문화사업단은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템플스테이를 통해 국 · 내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전통문화와 한국불교의 역사적 우수성을 알린다는 계획이다.

2012년 제4기 국제교류위원회 회의 개최

지난 3월 19일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 주관으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회의실에서 제4기 국제교류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 국제교류위원장인 사회부장 혜경스님, 포교부장 송묵스님, 국제교류위원 진월스님, 무상스님이 참석하여 국제업무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WFB(세계불교도우의회) 한국대회 진행경과, 1분기 국제행사 진행상황, 종무성과에 대한 국제팀의 보고 안건에 대하여 WFB 진행을 위한 대외 종단 유관 단체와의 관계를 보다 확대하고, 국제행사에 대한 종단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주요 자문내용으로 향후 종단 차원의 국제행사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를 위한 국제행사 실무 추진위원회(가칭) 구성과 함께, 국제교류위원회 활동 강화를 위해 실무력 있는 국제교류위원의 확대가 요구된다는 의견이 도출되었다. 이에 향후 국제팀에서는 국제업무 추진을 보좌할 실무진과 자원봉사단을 조직하여 국제교류위원회 산하에 배치하고, 국제교류위원을 현행 6명에서 10명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였다.





대한불교조계종 홈페이지 www.buddhism.or.kr (한글) www.koreanbuddhism.net (영문)

한국불교세계화를 위한 국제불교 소식지는 상호교류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제불교에 관련된 글이나 사진을 보내주시면 성심성의껏 담겠습니다.
(※ 지면에 소개되는 기사에는 불교신문의 기사를 편집한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주소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3번지 전법회관 3층 B동 한국불교국제네트워크(담당_ 선정화 간사)
전화 070-7769-8985 **전송** 02-733-8985 **이메일** kbin8985@naver.com **홈페이지** www.dourim.net/kbin **페이스북** 한국불교국제네트워크

전통불교문화원 태화산 연수원

공주시 사곡면 운암리 상원골에 자리한 '전통불교문화원'은 대한불교조계종 최초의 교육연수시설로, 만평 대지 위에 지상 3층의 규모로 자리하고 있다. 300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과 30여 개의 크고 작은 강의실과 편의시설이 다양하게 갖춰져 있는 이곳은 2010년 본격 운영되어 현재 만 2년이 지나고 있다.

최첨단의 쾌적한 시설을 갖춘 전통불교문화원은 누구나 언제든지 편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하는 분들에 맞춰 최적의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전통과 현대의 조화, 역사와 자연이 함께 어우러진 '전통불교문화원'은 온갖 나무와 산새들이 함께 빚어내는 선경을 이루고 있으며, 그 속에서 전통문화와 현대의 새로운 지식이 만나는 인재양성의 요람이 될 것이다.

이곳에서 진행하는 다도, 발우공양, 숲길명상, 친환경 생태 프로그램, 전통문화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은 찾는 이의 감성을 충족시켜 준다. 이곳을 찾는 이들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휴식을 취하면서 재충전의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인간다운 자원개발의 터전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자기성찰을 통해 인성을 회복하고 휴식을 통해서 여유를 되찾을 수 있는 곳! '전통불교문화원 태화산 연수원'에서 참 나를 찾길 바란다.

앞으로 홍콩 수봉선원 신도들이 5월 중 1박2일간 이용할 예정이고, korea retreat와 같은 여름철 외국인 명상과정 등이 진행되며 현재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주관의 70여 개 승가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운영기관의 연수와 초·중·고·대학, 종립학교의 연수가 이루어지고, 뮤직샤워(음악템플스테이) 및 참나를 찾는 참선입문과정과 심화과정 그리고 단체들을 위한 1박2일, 2박3일 템플스테이를 운영하고 있다. 전통불교문화원은 연간 3만여 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해외에 계신 분들도 한국에 올 경우 개인이나 단체 누구나 홈페이지를 통하여 예약 문의하면 성심성의껏 안내하여 줄 것이다.


〈전통불교문화원 전경〉

글_ 전통불교문화원 태화산연수원 연수팀장 정면상

전화문의_ 041-841-5050 / www.budcc.com



MIT공대 학생들의 특별한 해인사 템플스테이

3월 25~26일, 해인사에서는 특별한 템플스테이가 있었다. 미국 MIT공대 MBA(경영대학원) 학생 60여 명이 1박2일로 해인사를 방문, 스님들의 일상생활을 경험했다. 오후 4시, 우리는 보경당에서 첫 만남을 가졌다. 전날 밤 서울에서 대단한 파티를 하였는지 술과 고기 냄새가 법당에 진동했다. 그래서 나는 좀 강경하게 템플스테이를 진행해야겠다고 결심했다.

"한국 사찰 중 해병대라 불리는 해인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해인사는 규율이 매우 엄합니다. 만약 규율을 어기면 모두가 잠자리에 들 때 108배 참회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자 참가자들의 안색이 무거워졌다. 그 중에는 출가해서 하루라도 스님생활을 맛본다는 설레임 때문인지 웃음을 참지 못하고 환하게 웃는 이도 있었다. 그렇게 철저한 묵언과 규율 속에서 항상 차수를 하고, 스님을 보면 반배를 꼬박꼬박하며, 예불 시간에는 공손히 절을 올리는 참가자들의 모습에 지나가는 대중 스님들과 어른 스님들의 얼굴에 화색이 만연하였다. 미국에서 내로라 하는 엘리트들이 해인사에 와서 행자처럼 행동하는 모습을 기특해 하셨던 것 같다.

저녁 예불을 올리고, 우리는 대방에 둘러앉아 법담시간을 가졌다. 몇 시간 동안의 묵언이 풀린 참가자들은 한국 불교의 특징, 스님들의 일상생활, 마음 수행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들을 쏟아 내기 시작했다. 그 중 한국 불교의 특징, 또는 우수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약 2000명 이상의 출가 수행자들이 매년 여름 90일, 겨울 90일간의 안거 수행을 합니다. 그 기간 동안 스님들은 열 시간 이상 좌선을 하며 자기 자신과의 처절한 수행을 하는, 옛 불타 시절의 안거 수행 전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라는 대답에 적지 않게 놀란 것 같았다. 참가자들 중에는 요가를 경험한 학생들이 꽤 있었는데, 열 시간 이상 어떻게 앉아서 좌선을 할 수 있느냐고, 그게 가능하냐고 물었다. "우리 마음은 무한해서 수행을 할수록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으며, 안거 기간 중 일주일간은 자지도 않고 철야 용맹정진을 합니다."라고 대답해 주었다.

다음 날 새벽 3시, 법고 소리와 웅장한 범종 소리가 참가자들의 마음 속 깊은 곳에 잊지 못할 전율을 남긴 듯했다. 새벽 예불, 108배, 그리고 좌선을 단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무사히 마친 참가자들은 조용히 해인사의 아침을 맞이했다. 처음 해인사에 왔을 때, 불상에 대한 절을 하는 것에 대해 불편해 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다행히 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용감하게 선입견을 버리고 절을 했다.

비록 1박2일 동안의 짧은 출가였지만, 평상복으로 갈아입은 학생들의 눈빛이 어제의 그것과는 많이 달랐다. 참가자 대표는 이렇게 학생들이 좋아할 줄 몰랐고, 내년에도 꼭 해인사로 와서 템플스테이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불법의 인연은 참 묘한 것 같다. 떠날 때 왜 이렇게 아쉽고, 또 고마운지…. 우리는 이번 생, 아니면 다음 생에 꼭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그렇게 합장하며 헤어졌다.

글_ 해인사 율원 준한스님


〈해인사 보경당〉

한국불교 세계화를 위한 단상

오늘은 일요일이라 이곳 로스엔젤레스 Buddha Essence temple Zen center에서 주지 에쿄구 로시 스님의 수행에 대한 법문이 있었다. 이번 주는 토론형식의 법문으로 의자에 둘러 앉아 주지스님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고 과연 그것을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질문하고 답하는 형식이었다. 60여 명이 모였는데 그중 한 이야기가 참으로 인상적이었다. 어떤 중년부인이 남편과 크게 싸웠다고 한다. 서로가 격분해서 크게 소리 지르다가 한 사람이 "그런데 우리 이렇게 싸우지만 언젠가 죽는다는 것은 분명하네"라고 말했더니 잠시 정적이 흘렀고, 싸우고 있는 어리석은 자신들을 보게 되었다고 한다. 즉 죽음을 항상 옆에 두었더니 화나는 것이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이렇듯 이곳 미국의 불자들은 아주 겸허하면서도 진실하게 수행하려고 노력한다. 법문 끝에 주지스님께서 한국불교의 예불을 부탁하셔서 정성스럽게 염불을 하였다. 몇 분은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사실 미국에 와서 미국인들이 불교를 어떻게 받아들이며, 어떻게 수행을 하는지를 깊이 연구하고 있다. 특히 많은 미국불자들을 인터뷰하면서 소중한 것들을 알게 되었다. 한국불교를 세계화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를 계속 고민하면서도 느끼는 것은 우리는 참으로 소중한 많은 것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이다.


〈L.A. Buddha Essence temple Zen center〉

만나는 미국불자들마다 한국불교에 대해 묻고 관심을 가진다. 어디 가면 한국불교를 배울 수 있냐고. 하지만 자신 있게 소개해 줄 수 있는 곳이 없다.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영어로 현지인들에게 포교하는 곳이 하나도 없다고 한다. 우리는 과연 한국불교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지금이야말로 한국의 스님들이 더욱 넓은 시야를 가지고 큰 원력으로 세계를 향하여 발걸음을 재촉해야 할 때인 듯하다. 넓은 세상 속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작은 나에서 더 큰 나로 거듭 태어나는 나 자신을 본다. 한국의 많은 스님들도 내가 보고 느낀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참으로 좋겠다. "혼자 꾸는 꿈은 꿈이지만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는 말처럼 우리가 힘을 모아 언젠가는 한국불교로 부처님의 은혜를 크게 갚는 날이 오기를 희망해 본다.

글_ 자우스님 / 비로자나국제선원 02-6012-1731

[활동가 편지] 지구촌공생회 네팔지부, 빠른 성장의 노하우

저는 다와라마입니다. 현재 지구촌공생회 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9년 동안 생활하고 네팔로 돌아왔습니다. 제 고향인 욜모, 신드후파촉에서 관련 일을 해오다가 카트만두 지구촌공생회 네팔지부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네팔은 NGO 관련법이 어느 나라보다 잘 갖춰져 있으나, 제대로 일하고 있는 단체는 3,500여 개 중 1,000개도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또한 1년 안에 시작했다가 사업을 접고 되돌아가는 세계 각국의 NGO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네팔과 다른 나라의 NGO 사업 환경 및 운영위원들의 인식이나 활동내용 등이 매우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업을 시작하는 첫 해는 외국 NGO들이 이를 모르고 의욕을 가지고 시작하나 이후에는 큰 어려움을 느끼고 그냥 돌아가거나 아니면 운영위원 또는 현지인들에게 사업을 인계하고 떠나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희 단체는 그런 네팔의 일반적인 NGO들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구촌공생회의 네팔지부 로컬NGO는 기존에 네팔에 존재하던 NGO의 운영위원들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후원을 하는 한국 단체와 뜻을 같이하고 의지가 있는 사람들로 새로 선발했으며, 그들이 다른 NGO들과 다르게 정직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운영위원들이 네팔 상황만을 고집하지 않고 한국 직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논의하여 사업을 꾸려가고 있어 타 단체에 비해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2년째 되는 단체의 대표로서 NGO 미팅에 참석할 때마다 타 단체의 운영위원들이 묻곤 합니다. 어떻게 2년도 채 되지 않은 단체가 마치 10년을 해 온 단체처럼 사업의 속도를 내고 있으며 주변 인지도를 빠르게 얻고 있는지, 그 비결이 무엇이냐고…… 그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국 지구촌공생회에서 파견된 한국인 프로젝트 매니저와 봉사자, 그리고 네팔인 운영위원들 모두 함께 항상 협의하고 협조하고 노력하는 데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결과라고. 또한 어느 단체나 오랫동안 지속되기 위해서는 후원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 스스로 수입원을 창출하여 어떤 시기에서나 자체적인 운영이 가능해야만 지속적인 단체 활동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한국 단체들이 네팔에서 사업을 하실 때 지구촌공생회와 같이 현지 운영위원들과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사업을 꾸려나가신다면 네팔에서의 사업도 어렵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험담이 여러분의 네팔 사업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지구촌공생회 후원문의 02-3409-0303
www.goodhands.or.kr

▼ ❶네팔직원 다와라마 ❷청소년센터 재봉교육 ❸지구촌공생회 설립 스리마하락시미초등학교 학생들



월드머시코리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몽골로 사업 확대

국제구호단체 월드머시코리아가 2011년에 이어 2012년에도 해외교육사업과 외국인 유학생 장학금 지원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펼친다. 활동범위도 스리랑카와 방글라데시, 몽골로 넓히기로 결정했다. 월드머시코리아는 지난 2월 26일 서울 여의도 포교원 사무국에서 2012년 정기총회를 열고 2011년 결산과 2012년 주요사업을 발표했다. 월드머시코리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미얀마 오지마을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한다. 지난 12월 마궤도 네마웃군 레부마을 고등학교 A동을 건립하고 운영지원을 시작한 월드머시코리아는 부속건물과 B동을 짓는다. 이번 B동 건립은 정부로부터 정식인가 승인을 받기 위해 진행하는 것이다. 앞으로 시설이 완공되면 현지 학생들에게 질 높은 교육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해외지부 개설에 필요한 인력을 기르기 위해 외국인 유학생 및 스님들의 장학금 지원사업도 펼친다. 스리랑카 스님 2명과 미얀마 학생 1명을 선정해 총 1800여만 원 규모의 장학금을 지원해 한국불교의 모습을 소개하고 해외사업 교두보 확보의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병행하여 동국대 참사람봉사단과의 연대사업으로 해외봉사활동 및 빈민구호봉사를 전개하는 등 활동의 저변을 확대할 방침이다.


〈2012 정기총회〉

대표이사 현진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단체가 국제구호단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준 스님과 신도 등 후원자들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교육을 통해 빈곤을 끊어낼 수 있다면 어디든 가겠다"고 강조했다.

월드머시코리아 www.worldmercykorea.com

의왕시 청계산 청계사, 세계일화 모금 전달

지난해 12월 의왕시 청계산 청계사(주지 성행스님)는 신도들이 오가는 길목에 세계일화 모금함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그 동안 세계일화 모금함에 한푼 두푼 모아온 기금 150여만 원을 3월 22일 한국불교국제네트워크에 전달해 주었다.


〈초하루 법회 후 기금 전달〉

청계사 사부대중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아름다운 회향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할 것이다.

글_ 한국불교국제네트워크 간사 선정화

2012합천비핵평화대회 "핵 피해자 없는 세상을 만들어요"



〈2012합천비핵평화대회〉

지난 3월 23~24일 한국의 히로시마라 불리는 경상남도 합천군에서 '세계 피폭자와 함께 합천으로'라는 슬로건 아래 '2012 합천비핵평화대회'가 열렸다.

이번 대회에는 세계 핵 피해자들의 실태를 전하고 핵과 방사능 위험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세상을 염원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한국인 원폭피해자 2세 환우를 지원하는 합천평화의집과 국제구호 NGO (사)위드아시아에서 공동 주최한 이번 대회에서는 남태평양 비키니 섬, 러시아 체르노빌, 일본의 히로시마, 나가사키, 후쿠시마와 한국인 원폭피해자 1세, 2세 등의 세계 각국의 핵 피해자와 비핵평화 운동가, 국내 원폭피해자 등이 참가하였다. 대회 양일간 국내외의 참가자(연인원 4,500여 명)들이 참여하여 비핵평화의 도시 합천을 알리고 전 세계에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특히 24일 오전에는 한국의 원폭피해자들과 러시아 체르노빌, 미국 비키니 섬, 대만, 일본 등 각 국의 원폭피해자들이 만나 핵이 얼마나 무섭고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렸다. 오후에는 세계의 핵 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폭상황을 증언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폐막식에는 참가자들의 결의를 모아 '합천비핵평화선언문'을 채택하였다.

'합천비핵평화선언문'에는 "세계 각국 정부는 핵무기 철폐와 함께 핵에너지가 아닌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과 대책을 즉각 서둘러야 한다"는 것과 "한국을 포함하여 피폭자가 있는 세계 각국 정부와 핵보유국 및 기업이 세계의 피폭자들에 대한 법적,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하고 사죄와 정당한 보상을 최선을 다해야 한다", "국제적인 연대와 공동 행동을 통하여 세계의 피폭자들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해 협력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후원문의_ 위드아시아 02-3444-8007
후원계좌_ 농협 355-0004-5196-53 사)위드아시아

롱아일랜드 마하선원, 개원 12주년 기념법회

마하선원 개원 12주년 기념법회는 한국 문화를 알리는 한마당 잔치로 펼쳐져 눈길을 끌었다. 법당 가득 맑은 가야금 소리가 이어지자 여기저기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한국전통예술협회 송승민씨의 빼어난 가야금 연주에 이어 이송희무용단 단장의 화선무(花扇舞)가 선보였다. 아름다운 한복에 매화가 그려진 부채를 들고 춤추는 모습은 나비의 몸짓처럼 우아하여 큰 박수를 받았다. 이어 앙코르 무대로 아리랑 공연 후 참석자들은 가야금 연주에 맞춰 진도아리랑을 함께 불렀다. 이 자리에는 한인 불자는 물론 미국서 자라는 한인 1.5 및 2세와 타민족들도 자리를 함께해 더욱 뜻 깊었다.

2000년 한인사찰로는 롱아일랜드에 처음으로 들어선 마하선원은 한국 선(禪)불교는 물론 우수한 한국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해 세워졌다. 3월 18일 열린 개원 법회는 마하선원 회주이신 보스톤 문수사 도범 큰스님을 모시고 진행되었으며, 도영(윤요안) 사진 전시회도 함께 가졌다. 스쿨오브비주얼아트(SVA)를 졸업한 작가는 이번 전시회에서 색감이 뛰어난 작품과 간간히 촬영한 마하선원 신도들의 인물사진 및 기도 모습도 선보였다.

주지 서천스님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목말라 하는 한인과 외국인들을 위해 롱아일랜드에 터를 닦고 개원한 지 벌써 12년이 됐다"며 "쏜살보다 더 빠른 것이 망각이라고 하는데 초심을 잃지 않고 앞으로 부처님의 법이 더욱 퍼지도록 포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날 법회에서는 도범스님이 불교에서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 법문했다. 행사에는 뉴욕지구 한인불교신도회 고창래 회장, 이영희 한국문화박물관 성정숙 관장 등이 참석해 축하했다.

뉴욕 마하선원 +1-516-338-5353


이송희무용단 단장의 화선무


보스톤 문수사 도범스님(좌)과 마하선원 주지 서천스님

뉴욕 대관음사, 미국 명문 사립고에 불교 강의

멜세스버그 아카데미(Mercesburg Academy)는 펜실베이니아주 멜세스버그라는 작은 마을에 있는 명문 사립고이다. 이 학교에서 영어와 불교를 가르치는 미국인 선생님 메튜 카레티(법명 선재)는 1997년도에 한국의 영남대학에서 영어를 가르치면서 한국 불교와 인연을 맺게 되었다. 2005년경 대구 대관음사에서 만나 친분을 쌓게 되었고, 마침 작년 미국에 왔을 때 이 학교에서 불교 강의를 개설해 가르치던 중이라 나에게 강의하여 주기를 청하였다.

이후 매 학기마다(3학기제) 강의를 하게 되어 올 4월이면 4번째 방문이다. 이틀간의 일정은 불교반(약12명) 강의 두 번, 세계종교반 강의 한 번 그리고 방과 후 요가반 강의 한번 정도로 구성되며, 강의 진행은 내 소개, 5분 참선(수식관), 한국 불교와 참선 소개, 질의응답으로 진행하고, 끝나면 단주를 하나씩 끼워주는데 아이들이 참 좋아한다.

지난 1월에는 마침 동국대에 재학 중인 사제 영국인 서래스님과 함께 가게 되었는데, 아이들에게 실제 수행생활에 대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전달할 수 있었다. 5분 참선에 대한 느낌을 굉장히 신선하게 느낄 뿐만 아니라, 이 아이들은 "왜 출가하셨나요?"는 기본 질문이고, "스님은 깨달았어요?", "스님은 스님의 어머니가 전생에 동물일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등 한국에서는 잘 예상할 수 없는 매우 원초적인 것을 물어온다. 이 학생들은 불교에 대해 커다란 호기심과 신선함을 느끼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이 학교 4백여 명의 학생과 선생을 통틀어 거의 유일한 불자이자, 불법의 전도사인 선재선생님에게 상을 주고 싶다.

한국에 있을 당시, 동화사에 주석하시던 현 종정스님께서 어느 날 영남일보 칼럼에 게재된 선재의 글과 사진을 우연히 보시고, 친히 동화사로 불러 말씀하시길 "니 중 안 되고 머하노?" 하셨단다. 늘 출가를 생각해 온 선재는 내년 한 해 학교를 휴직하고, 일년간 한국의 선원에서 직접 정진을 해보고 인생의 마지막 용단을 내리겠다고 했다.

글_ 뉴욕 대관음사 청호스님


청호스님(좌)과 서래스님

필리핀 마닐라선원, 오카리나로 어린이 포교

필리핀 따가이따이의 마닐라 선원에서는 매주 일요일, 부처님의 가르침을 청아한 오카리나 소리로 노래한다.

까무잡잡한 필리핀 시골아이들의 순진한 숨결이 오카리나를 지나 만들어낸 음색을 들을 때면 지상낙원에 온 것 같은 느낌이다. 부끄러움에 멋쩍은 손 인사만 간신히 하던 어린 소녀의 손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떨리지만 정확하고 청결한 음색으로 짚어낸다. 이는 개원 이래 계속되어온 마닐라선원의 '오카리나 불공'이 이루어낸 성과이다. 가톨릭 국가인 필리핀에서 불교에 익숙하지 못한 어린아이들이 악기 연주를 통해 더욱 친숙하게 불교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 오카리나 전법의 장점이다. 덕분에 현지 아이들에게 불교는 새로운 배움의 분야이자 즐거움이다. 매주 오카리나를 통해 불교에 입문하는 현지 아이들도 차차 늘어가는 추세이다. 이에 마닐라선원은 오카리나를 통한 불교 포교에 더욱 매진하려 계획하고 있다.



재잘재잘 까불며 놀던 아이들이 불상 앞에서 예불을 올리고, 근엄한 표정으로 찬불가를 연주하는 몸짓과 미소를 보면 불성이 이런 것인가 생각해 본다.

글_ 총무 관조 거사님

필리핀 마닐라선원 +070-7687-3111~2

미시간 무문사, 홈페이지 새 단장 마무리

무문사(無門寺, Mumunsa)는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근교에 있는 대한불교조계종 사찰로 참회기도도량, 참선정진도량을 지향하고 있다. 미시간주뿐만 아니라 오하이오주 그리고 디트로이트와 인접한 캐나다의 아름다운 도시 윈저를 포함한, 이 지역의 한국 불교 포교를 담당하고 있는 유일한 한인 사찰이다.

무문사의 정기법회, 참선법회, 외국인을 위한 영어법회 및 특별기도 등은 불자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모든 분에게 개방되어 있으며, 무문사 웹사이트는 수행과 기도 및 국내외의 불교정보를 안내하고, 교민 여러분에게 유익한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되었다. 새로이 단장한 웹사이트를 많이 이용하여 주길 바란다.

미시간 무문사 www.mumunsa.org



오클랜드 보리사, 개원 5주년을 맞아 비구니국제승가교육원 발족

3월 25일 보리사 5주년 기념법회에 60여 명의 북가주 불자들이 참석하여 기쁨을 함께 나누었다. 이날 주지(형전)스님은 인재양성기반인 보리한국문화학교와 보리사 국제승가교육원(KSIEC)의 출범을 정식으로 선포하였다.

한글학교는 매주 토요일 10시에 시작되고 현재 6명의 학생이 있다. KSIEC는 비구니 스님들의 해외포교 기본도량으로 현재 2명의 스님이 정진 중이며 올해 두 명의 스님이 더 입방할 계획이다. 주지스님은 이민 1.5세와 2세를 위한 사찰이라는 개원 당시의 서원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발전하였다면서 앞으로도 50년 후 우리의 후세들이 지키고 함께 하는 사찰로 자리매김을 할 것을 다짐했다.

또한, 지일스님은 부처님 말씀을 통해 행복의 길을 찾으라고 법문했다. 올해 60번째 생일을 맞이한 김인남(보광명) 불자가 대중공양을 하였다.

법회가 끝난 후 대중들은 한국인 유학생들이 마련한 공연들을 감상하며 고향의 정취를 만끽하기도 하고, 어린 불자들의 정성어린 연주에 힘찬 격려와 박수를 보내기도 하였다. 장언남(21)의 설장구 공연과 하나가 되는 민요부르기, 이수잔 이세미 모녀의 하와이안 댄스, 보리사가수 안정열(31)의 감칠맛 나는 트로트, 박주현(8) 어린이의 피아노 연주, 강예림(12) 양의 수화가 많은 사람의 박수를 받았다. 법회가 끝나고 설문조사를 하였는데 '불자가 사찰에 오는 이유?'라는 질문에 '기도'와 '법문'을 듣기 위해라는 답이 제일 많았다.

단 3명의 신도로 창건한 보리사의 개원 5주년 법회는 스님과 대중이 한마음으로 이민생활의 희로애락을 함께 하고 불법을 따르는 마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희망법회였다고 생각한다.

글_ 보리사 주지 형전스님

오클랜드 보리사 +1-510-594-7687





(우)이수잔, 이세미 모녀의 하와이언댄스



미동부 청소년 불교문화체험 연수단 모집

뉴욕불교신도회(회장 고창래)가 한인 청소년들에게 한국 전통문화 체험의 기회를 주기 위해 올해도 청소년 모국방문 한국전통 사찰 문화체험 연수단을 꾸리게 되었다. 7월 7일부터 16일까지 10일간 한국사찰과 문화유적지를 탐방하는 '제4회 미동부 청소년 불교문화체험 연수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소년 불교문화체험 연수는 차세대를 이끌어 갈 청소년들에게 한국문화의 모태인 불교를 배움으로써 불교문화의 이해와 자아 성찰의 기회를 가지며, 불자로서의 자긍심을 심어주고 한민족의 우수 문화를 통해 한국인의 정체성을 높이고자 2009년에 시작됐다.

올해로 4회를 맞아 뉴욕불교신도회가 주최하고 미동부해외특별교구,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대한불교조계종 국제불교학교가 주관한다. 고창래 불교신도회장은 "청소년들이 한국 전통문화체험을 통해 한국의 뿌리를 찾는 것인 만큼 계속 이어져야 하며 종교를 초월, 불교신자가 아니라도 타종교 청소년들도 참가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부터는 해외포교를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불교학교와 공동으로 실시하는 한편 모국방문에 참가한 청소년들의 네트워크 결성도 추진하여 연수 프로그램을 더욱 활성화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연수단은 전국의 주요 사찰 탐방 및 템플스테이를 통해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녹차 만드는 과정, 도자기 굽기, 일일 장터 체험의 기회도 갖는 등 한국문화를 다채롭게 경험할 예정이다. 총무원 견학과 천안함, 강화도, 비무장지대, 국회의사당 방문, 국립중앙박물관 일일 프로그램 참여, 인사동 예술의 거리, 민속촌, 경복궁, 남한 한옥마을, 청계천을 둘러보는 서울시내와 근교 관광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다.

참가대상은 8학년 이상 학생(대학생 포함)이며 선착순 25명이다. 불교신도회는 4월 30일까지 선착순 신청마감을 한다. 신청서류는 신청서 1부, 자기소개서 1부, 여권사본 1부이고 참가비는 1,900달러(한국왕복 항공료 포함)이다.

■ 참가신청 : 212-574-4440(미동부해외특별교구), 917-533-8175(뉴욕불교신도회)

칭다오 관음사,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무한 정진

관음사는 2012년 새해 새봄을 맞아서 다양한 동아리활동을 계획하고 있으며 일부는 이미 시작되었다. 백두산 조선족 양로원 봉사를 비롯하여 음악 분야에서는 색소폰 동아리활동, 사물놀이, 가야금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미술 분야에서는 그림 그리기를 하며, 선무(仙舞)동아리, 탁구동아리, 등산반 동아리의 체육 관련 활동을 하고 있다. 채마밭 가꾸기를 통해서는 신도님들의 정서함양과 신체단련 증진에 노력하고 있다.



매주 수요일에는 '다라니 21독' 과 '불교경전공부' 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외 매일 108배 절하기, 사경하기 수행 등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토요일(3월10일) 지장재일에는 '3차 1년 49주 49재 천도재 중 22주차'를 끝내고 '방생법회'를 다녀오기도 하였다. 그리고 하루 뒤인 3월 11일 일요법회 때는 거사님들이 도반들을 위해 '비빔밥'을 손수 마련하여 보시하는 행사도 있었다. 이를 계기로 거사님들의 동참이 늘어날 듯하여 상당히 고무적이다.

현재 적지 않은 신도님들이 경제적 이유로 한국으로 귀국하는 등 중국 포교당들은 녹록치 않은 실정에 놓여 있다. 종단의 관심과 지원을 기대해 본다.

글_ 관음사 주지 태허스님

칭다오 관음사 +86-532-8772-9100

미국 부다나라 후원회 '부다나라 중창단'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부다나라 후원회'는 한국에서 '미국 부다나라(불국사)'를 지원하며 예술문화 공연 및 다방면의 봉사를 통해 신심을 고취시키고 회원 간의 유대관계를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부다나라 중창단은 요청이 오면 크고 작은 행사뿐만 아니라 장례식 등 가리지 않고 언제든지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 지극한 마음으로 불음을 전한다. 하지만 오늘이 있기까지 지나온 시간들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중창단은 후원회가 한국에서 활동한 지 10여 년이 지났지만 재정이 빈약하여 고생하다가 작년 가을부터 대각사 장산 큰스님의 배려로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대각사 1층을 사용하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다연심 이민영(지휘) · 강은영(반주) 선생님이 오게 되어 부다나라 중창단이 날개를 달았다. 일시 귀국한 부다나라 주지 선각스님은 3월 17일 대각사 중창단 법회에서 "음악은 마음을 움직이고 마음을 정화하여 긍정적인 삶으로 인도하므로 노래를 부르는 가릉빈가의 화신인 불자님들은 선녀님들이고 천사님들"이라고 말했다. 지금 중창단은 대각사 '음력 5월 8일 용성큰스님 100주년 기념행사'와 제23회 니르바나필하모닉오케스트라 정기연주(KBS공개홀)인 불기 2556년 부처님오신날 봉축기념 「칸타타 담마파다III」합창곡을 준비하고 있다. 부다나라 중창단에서 같이 노래 부르기를 원하는 불자님들은 극락심(010-4996-5302)에게 연락하면 된다.

글_ 부다나라 법등장 극락심



한 티베트 여성, 분신의 비극적 행로 – www.guardian.co.uk [2012. 3. 26]

인도, 달람살라 – 쩌링 키는 어렸을 때 여름의 목초지를 향해 이동하기 전과 돌아오기 전날을 가장 좋아했다. 중국 간수 지방 테톡 마을의 30가구에 이르는 유목민 가족은 계절의 리듬을 따라 움직였다. 봄에는 야크 등에 집기를 얹어 높은 계곡과 언덕을 올랐고 그곳에서 가축들은 풀을 뜯었다. 아이들은 호수와 계곡의 흐르는 물가에서 개구리와 함께 놀곤 했다. 마을사람들은 겨울이 다가옴에 따라 풀을 찾아 낮은 곳으로 내려왔다. 이들은 이동하기 전 하루 전날에 무거운 짐은 미리 싸서 보냈다. 여자와 아이들은 뒤에 남아 별을 보고 잠을 잔 후 다음 날 출발했다. 이 때가 키가 가장 좋아했던 시간이다. 키는 도시생활을 싫어했다.

3주 전 오후 늦게 20살의 키는 마추 마을 한가운데에 있는 야채가게 앞에서 분신했다. 분신 하기 전 화장실에 들어가 전통 티벳 겉옷을 벗고 석유를 몸에 뿌렸다. 그리고 가게 앞으로 가 불을 붙였고 23번째로 분신한 사람이 되었다.

근래 며칠도 채 지나지 않아 분신의 사례들이 연이어 보고되고 있다. 키가 분신한 이후에도 7명이 뒤를 따랐고 27살의 한 청년은 중국의 주석 후진 타오의 뉴델리 방문 하루 전에 분신했다. 티베트 공동체가 있는 다람살라 거리는 이 '순교자'들의 포스터로 가득 채워져 있다. 가장 최근의 포스터는 44살의 한 농부이다. 앞으로 더 많은 분신이 있으리라는 데 아무도 의심이 없다. 달라이 라마가 티베트를 도망 나와 거주하고 있는 다람살라의 티베트인들은 분신이 중국 당국의 억압적 정책에 대한 좌절감에서 발생한다고 말한다. 한 절에서 몰래 유출된 편지에 의하면 2주 전에 일어난 34살 스님의 절문 밖 분신의 이유가 지역학교에서의 티베트어교육 억압, 중국공안원의 증가, 티베트 종교 수행에 대한 새로운 탄압이라고 열거하고 있다. 또 다른 원인은 지역 유목민의 강제적 이주 정책에 기인한다.

5리터의 석유통을 산 것이 쩌링 키의 마지막 모습이다. 몇 시간 후 중국 공안원들이 타고 남은 키의 유해를 마추 마을 야채가게에서 옮겨 갔다.


〈조캉사원 석가모니불〉

멕시코에 뿌려진 불교 씨앗
– www.casatibet.org.mx [2012. 3. 19]

토니 카람이 콜로라도에 있는 나로파학원과 네팔의 랑중예셰학원에서 수년간의 공부를 마치고 달라이 라마의 멕시코 첫 방문 기간 중 티베트하우스를 개관한 80년대에는 불교가 멕시코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었다. 카사티베트멕시코(Tibet House Mexico)는 요즘 세계에서도 독특한 과목을 가르치고 있고 티베트 불교에 대한 세미나를 매년 열고 있다. 한 학기 당 500여 명이 수강하고 있으며 점점 많은 사람들에게 불교를 알리고 있다.



교재는 주로 소파 게셰가 쓴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라 불리는 책으로 종카파가 쓴 '람림 첸모'에 대한 개론서이며 비종파적이고 과학적이다. 토니는 수행과 이외의 여러 방법들을 통합해서 점차적으로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다. 현재 티베트하우스를 졸업한 학생들이 불교를 지속적으로 공부하기 위해 다른 도시에도 또 다른 센터들을 세우고 있다. 티베트하우스는 라틴 아메리카에 최초로 아름다운 불탑을 세웠는데 이곳에 집중수행 센터가 들어서고 있다. 또한 저소득층 미혼모를 돕는 비영리재단을 운영하는 등 멕시코 전체에 소속 회원이 1,500명 정도이다. 점점 많은 사람들이 보시, 인욕, 자비 등의 가르침으로 덜 이기적이고 의미있는 삶을 살기 위해 불교를 배워 익히려 하고 있다. 더불어 수많은 사람들이 멕시코에 불교를 들여와 멕시코말로 불교를 접할 수 있게 해준 토니에게 고마워하고 있다.

제3회 세계불교포럼 기자회견 발표
– 중국불교협회 국제부 원고 제공 [2012. 3. 29]

3월 27일 중국불교협회, 홍콩불교연합회, 중화종교문화교류협회 주최로 4월 25~27일까지 홍콩에서 개최되는 제3차 세계불교포럼에 대한 기자회견이 진행되었다.

본 포럼은 세계 50여 개국 1,000명의 불교지도자와 학자 등이 초청되어 '조화로운 사회를 위해 공동으로 발원하고 노력하자'라는 주제로 개최되며, 분과토론은 '불교 홍법의 현대적인 모델' '생활 속에서 불교의 응용, '경전의 정리 · 보호 · 번역 · 현대적인 해석' '불교 교육의 전통, 현상 및 미래 발전' '불교 자선의 이념과 실천' '불교 유적과 비물질 문화유산의 보호와 개발' '글로벌화 시대 남북전불교의 발전과 사명'이라는 7개 소주제로 마련된다.



중화종교문화교류협의회 장견영 부회장은 "금번 제3차 세계불교포럼과 부처님 두정골 사리 봉안법회 행사를 홍콩에서 동시에 개최함을 소중한 인연으로 생각하며, 세계불교포럼 개최를 통해서 중국과 홍콩 불교계가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하였다.

세계에서 가장 큰 탑불사를 한 억만장자
– Forbes Magazine [2012. 3. 26]

인도, 뭄바이 – 매일 수십대의 관광객을 태운 버스들이 뭄바이 교외의 고라이에 인도 억만장자 수바쉬 찬드라의 이셀그룹이 세운 유명한 놀이공원에 도착한다. 2008년 이후 고라이에 가는 교통이 7배나 늘었다. 이 사람들은 나무 위로 거대하게 솟은 탑 '글로벌 위빠사나 파고다'로 위빠사나를 수행하러 간다.



◀ 글로벌 위빠사나 파고다

이 탑을 지은 사람은 Zee TV를 경영하는 억만장자 수바쉬 찬드라이다. 찬드라는 참선으로 인해 사업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그의 스승 고엔카에게서 지난 20년 동안 위빠사나 수행지도를 받았다. 이 탑불사를 하는 데 11년이 걸렸다. 미얀마에 있는 2000년 된 쉐다곤 파고다를 본떠 지은 황금빛 탑이다. 기둥없이 사암(砂岩)의 홈을 맞물리는 전통적 방식으로 지은 것이 특징이다.

"이것은 독특한 구조입니다. 2000년을 갈 수 있도록 지어졌습니다"라고 젊어 보이는 61살의 찬트라가 뭄바이 이셀 본사 사무실에서 말했다. 책상 뒷벽의 그림 속 부처님처럼 고요한 모습의 찬드라는 "나는 위빠사나 수행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위빠사나를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국제불교 단신

◆ 제2회 국제불교대학 학술회의
국제불교대학연합회는 6월 1일 태국 아유타에서 '불교 철학과 응용'이라는 주제로 제2회 국제불교대학 학술회의를 연다. 110명의 학자들이 불교 철학적 견해들의 통합, 새로운 나라에의 전법, 불교 심리치료학에 관한 논문을 제출할 것이다. 태국에서 가장 큰 불교대학인 출라롱콘대학이 주최한다.

◆ 미국 최초 군종법사 토마스 다이어
미국 최초 군종법사 토마스 다이어가 조지아주 포트 베닝에서 복무 중이다. 다이어는 내슈빌 출신으로 기독교 목사였다가 후에 티베트 불교로 개종했다. 2009년에는 중동에 파병되어 복무했었다.

◆ 영국에서 국제불교영화제 열려
국제불교영화제(IBFF)가 4월 11~15일에 영국 런던에서 열렸다. IBFF는 세계 여러 나라 도시들을 돌며 매년 열리고 있다. 절을 지켜내기 위해 카투만두에 가야만 하는 비구니를 다룬 '까르마'와 탐 월러의 영화, 데이비드 그루빈의 다큐멘터리 '붓다' 등이 상영되었다.

집중조명

호주 불교의 선봉장 아잔 브람

재미있는 선법문으로 전 세계에 전법

아잔 브람스님(Ajahn Brahmavamso Mahathera)은 1951년 생으로 영국 출신이다. 브람스님은 현재 보딘야나사의 주지이고 호주 서부지역의 불교연합을 이끌고 있으며 불교가 이 지역에 뿌리를 내리는 데 주춧돌 역할을 했다. 세계적 베스트셀러인 'Opening the Door of Your Heart'의 저자이기도 한 브람스님은 깊은 수행과 이를 통해 나오는 감동적이면서도 재미있는 법문으로 유명하여 호주 전역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을 다니며 전법하고 있다. 이번 집중조명에서는 호주에서 불교를 개척한 브람스님의 전법활동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브람스님은 17살 때부터 불교에 입문해 스스로 불교책을 보고 참선을 하기 시작했다. 불교에 대한 관심은 캠브리지대학 생활 때도 이어졌고 잠시 고등학생들을 가르치다가 23살에 출가를 했다. 이후 9년 동안 태국의 숲 속에서 12두타행 전통을 따르는 아잔 차 스님 밑에서 경전을 공부하고 수행을 하다가 1983년 호주서부불교연합(ASWA) 초청으로 호주 서부에 있는 퍼쓰에 갔다. 현재는 브람스님이 ASWA를 이끌고 있다. 처음 스님의 소임은 아잔 자가로 스님을 도와 절을 창건하고 불교를 가르치는 일이었다. 이 때 세워진 절이 보딘야나사이고 이후 다마로카사를 지었다. 브람스님이 주지로 있는 보딘야나사는 호주 서부지역 최초의 불교사찰이다. 보딘야나사가 주로 스님들의 수행처인데 반해 다마로타사는 신도들이 신행 생활을 하는 곳이다. 초창기 불자도 거의 없는 지역 퍼쓰에서의 가난한 절 생활은 고된 것이었다. 호주에서 불교가 잘 안 알려진 때라 스님과 절에 대한 오해가 많았다. 따라서 당시 스님들은 사람들한테 놀림을 받았고 어떤 때는 공양도 받지 못해 며칠을 굶어야 했고, 심지어 돌팔매질을 당하기도 했다.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스님은 직접 배관을 연결하고 벽돌을 쌓아 절을 지었고 이후 20여 년 동안이나 절 짓는 일을 계속했다. 브람스님은 이때를 언제나 재미있고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했던 때로 기억한다. 불교도 열심히 가르쳤는데 나중에는 매주 금요일 밤마다 8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처음 스님들을 신뢰하지 않던 마을 사람들도 스님들이 일을 하면서 소박하게 살고 무엇보다도 불교의 가르침이 얼마나 깊은지를 알아가자 점차 공양을 하고 보시를 하기 시작했다. 현재는 매일 재가불자들이 절을 찾고 있고 주요 행사 때는 2,000명이 모일 정도로 성장했다. 브람스님은 위 두 절 이외에도 비구니 절인 담마사라사를 세우는 데 큰 공헌을 했다. 담마사라사 네 명의 스님들이 정식으로 비구니계를 받을 것을 요청해 오자 태국승가의 반발이 있음에도 2000명에 달하는 ASWA 구성원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논의를 거쳐 2002년 10월 태국 최초 비구니계 수계식을 가졌다.



5월에 있을 싱카폴 초청법문 포스터

스님은 첫 안거를 났던 경험을 가장 소중히 여긴다. 이때 매우 깊은 경지에 들어갔고 기쁨과 지복을 체험했기 때문이다. 행복이야말로 삶의 의미라고 주장하는 스님은 선수행을 함에 있어 행복과 지복의 체험을 강조하며 사마타와 위빠사나가 같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브람스님은 수행자로 살면서 나와 남의 행복을 구분지을 수 없게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가능한 많이 설법하고 포교해서 사람들을 웃게 할 것이라고 말한다.

풀리처재단, 불교예술로 마음치유

– huffington post

"나는 오직 한 가지 고통과 고통의 끝을 가르친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고통의 끝은 마약 딜러이자 범죄자였던 키쓰 프리만이 수십 년 동안 찾아 헤맸던 것이다. 전과자, 노숙인들과 불교예술작품을 연결하는 5개월간의 풀리처재단 기획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프리만은 깨달음에 한 발짝 다가간 것 같다고 말한다. 신인 연기자들로 구성된 이 그룹은 불교의 가르침과 그들 자신의 고통과 씨름하면서 골라낸 대본으로 만든 15개의 연극을 준비하고 있다.

프리만은 어려서 아버지가 가출을 했고 어머니는 자주 아팠기 때문에 어린 네 동생들을 돌봐야 했다. 15살 때 그는 학교를 그만 두었고 나쁜 무리들과 어울려 기차에서 도둑질도 하였다. 17살 때 교도소에 일 년 동안 수감되었고 30살 이전에 마약판매로 재수감 되었다. 프리만은 이후 20년을 욕망을 채우고자 전전했다. "그동안의 삶은 생활과 욕구와의 사이에 전쟁이었습니다. 꽤 오랫동안 전쟁을 치렀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프리만은 작년에 세인트페트릭 노숙인 센터에서 외래환자를 위한 마약치료프로그램에 참여했다. 프리만과 이외 16명의 사람들이 참여하는 '부처님 마음 공연'이라는 재단 프로그램이었다. 재단의 설립자이자 감독인 에밀리 풀리처는 이 프로젝트가 관중과 예술, 사회 구성원 간에 다리를 놓으려는 목적으로 고안되었다고 말했다.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생각을 말로 표현하고 자신을 신뢰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데 있다.



풀리처재단의 회랑과 교실에서는 배우들이 참선을 하고 시를 쓰고 있다. 여러 번의 놀이와 즉흥연기는 팀워크와 소통능력을 향상시켰다. 즉흥연기 때 나온 대사는 관객 앞에서 공연될 연극의 시나리오가 되는데 직원들이 옆에서 컴퓨터로 열심히 기록하고 있었다. 이 시나리오는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나중에 검토되고 배우들에게 다시 배포된다. 공연을 하는 동안 배우자들과 관객들은 한 작품에서 다음 작품으로 옮겨 다닌다. 이러한 역동성을 에밀리 풀리처는 열정적인 연극이라 비유한다. 배우들은 관객을 회랑 여기저기로 이끌면서 즉흥놀이 때 동료들이 만들어낸 대사를 시나리오를 읽으면서 했던 것처럼 재연한다.

세인트페트릭센터에 다니는 알리 윌슨은 처음 프로그램을 보고 뭘 생각해야 하는지 몰랐다면서 "이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을 때 내 안의 역할과 내 자신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다. 다른 차원에서 자신을 잘 살필 수 있게 되면 마음이 평화로워진다"고 말했다. 프리만은 불교를 알고 미래에 대해 덜 걱정하게 되었으며 망상이 힘을 갖지 못하게 했다고 말했다.

팔정도 중 '바른 생활'에 대하여

– Wayne Codling, Times Colonist

삶의 많은 시간이 밥벌이를 위해 사용된다. 우리의 경제는 일터의 생산성에 의지한다. 오늘 나는 불교의 바른 삶을 소개하고 각 직장이 참선을 도입, 전체적인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음을 제안하고자 한다.

요즘 감성적 자질이 지도자로서의 성공을 가늠하는 열쇠가 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그 중 지도력, 추진능력, 적응력, 영향력, 팀 지도력, 정치 이해, 공감력, 자신감 등이 중요하다. 불교에 의하면 계 정 혜로 분류되는 8정도 중 바른 생활은 계에 속한다. '바른 생활'은 산스크리트어 해를 끼치는 않는다는 '아힘사'에 연결된다. 불교 윤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친절이고 바른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사회문제의 많은 부분이 경제활동과 관련된 도덕성의 결여에서 연유하고 있다. 수많은 가정과 투자자들을 파산케 하고 횡령한 것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기 때문에 몇 사람은 부자가 되었을지 모르지만 우리 경제는 거의 파산 직전에 있다. 해를 끼치는 것에 대해 두려워할 줄 아는 경제였다면 이렇게 힘없이 무너지진 않았을 것이다. 이런 기업 문화에 참선수행이 중요하다. 좀 복잡한 작업일 수 있다. 사원의 정신적 건강과 감성적 지성을 고양시키고자 하는 회사는 직장인들이 새 아이디어를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예를 들어 다양성을 존중하고 피해나 소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존경심을 가지고 접근한다면 참선이 다음과 같은 믿음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연구결과와 경험들이 보여주고 있다 : 무단 결근과 병가율의 감소 / 생산성 증가 / 스트레스 관련 불안감의 현저한 감소 / 능력 있는 직장인들의 눈에 띄는 고용 증가

먼저 우리 사회가 모든 일을 잘 수행하는 데 있어 바른 생활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모든 일에 감성적 지성이 필요함이 증명되고 있다. 이것이 참선을 직장에서 도입해야 하는 이유이다.

산재 사망 유가족, 아름다운동행에 기부금 전달

이주민 법당 건립에 작은 씨앗이 되기를

지난 4월 4일 미얀마 출신 故 쌍마오(San Maung)씨의 유가족이 산재보상금의 일부를 이주민법당 보타사 건립 후원 자금으로 아름다운동행에 기부했다. 쌍마오씨는 지난 2011년 7월 충남 아산의 NT 폴리머 공장에서 근무하다 산업재해로 사망했다. 당시 사건을 접수한 김포마하이주민센터와 방글라데시 법당 보타사가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섰고, 8개월이 지나서야 산재보상처리가 일단락되었다.

유가족인 쌍마오씨의 아내 탄누(Than Nu)씨는 "남편을 보내고 어떻게 지내야 할지 많이 막막했는데 주변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노력해주신 덕분에 조금은 힘이 생겼다. 작은 금액이지만 우리와 같은 이주노동자들을 위해 써달라"고 그간의 고마움을 기부금과 함께 전달했다. 아름다운동행 사무총장 혜일스님은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겠지만 어려운 결정을 해준 유가족께 감사드린다. 유가족과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바란다"며 "기금은 이주민 법당 건립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3월 18일에는 부평 미얀마 담마뚜따 문화협회에서 쌍마오 추도 법회를 개최해 미얀마 이주민 100여 명이 고인의 넋을 위로하였다.

김포마하이주민센터 031-8543-7605



아름다운 동행 기부금 전달식에 참석한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상임공동대표 도제스님, 아름다운동행 사무총장 혜일스님, 유가족 탄누씨와 친척, 김포 보타사 신도회장 라나씨.

김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12년 국적취득대비반 개강

"국적취득 더 이상 어렵지 않아요"

지난 4월 4일 김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진오스님)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국적취득대비반"을 개강했다. 지난 3년간 센터의 통번역지원사들은 총 300여건 이상의 귀화신청서류 작성을 지원하였는데, 이는 안정적인 한국정착을 원하는 이주여성들과 다문화가정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이에 좀 더 체계적으로 이주여성들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마련하게 되었다.

국적취득에 관한 정보가 미흡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혼이주여성들은 국적취득대비반을 통해 그 동안 어렵고 힘들었던 국적취득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게 되었다. 4월 4일부터 4월 26일까지 주1회 2시간씩 총 4회 강좌로 진행되며 시험예상 문제와 귀화절차안내, 한국의 문화와 예절 등을 교육한다.

수강생 꾸앗디배갑(여, 27)씨는 "작년에도 국적취득 면접시험에서 떨어졌다. 혼자서 국적취득시험 공부하는 것이 어려웠는데 이런 수업이 생겨 다행이다. 빨리 국적취득을 하여 한국에서 자유롭게 살고 싶다."며 교육에 대한 열의를 보였다.

김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054-439-8280



국적취득시험 대비반 수강생들과 선생님들이 의지를 다지고 있다.

김해 한국외국인인권보호법률위원회 경남지부,

이주민 쉼터 "함박터" 개소

지난 3월 13일 김해 대법륜사 경내에서 김해 한국외국인인권보호법률위원회 경남지부(대표 명본스님) 개소식이 열렸다. 아울러 외국인 밀집지역인 김해시 부원동에 이주민 쉼터 '함박터'를 함께 마련했다. 함박터에서는 한국어 교실 및 다양한 문화 행사와 교육 등을 준비하고 있으며, 한국어 교육의 경우 부산 경성대 국어국문학 대학원생들이 자원봉사로 도움을 주기로 했다. 이로 인해 김해지역의 스리랑카, 미얀마, 태국 등 불교국가 출신 이주민들이 많은 편익을 얻을 전망이며, 이 외에도 이주민 인권 보장을 위한 법률 자문 및 다문화 가정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대법륜사에서 경남지부를 맡게 된 한국외국인인권보호법률위원회는 세계인권선언을 기반으로 한 인간의 기본적 인권보호와 인류의 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단체이며, 외국인이 한국에서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법률무료상담 및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특별강좌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단체의 대표인 명본스님은 개소식 기념법회에서 "외국인들과 자주 만나면서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필요한 부분을 공감하고 싶다. 문제를 해결해 나가며 함께 행복한 세상을 열어가는 징검다리가 될 것"이라며 "불교계와 지역 사회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실무자인 최은영 인권팀장은 "김해지역 외국인 근로자 수는 7,000여 명으로 결코 작은 수가 아니다. 하지만 타 지역에 비해 이주민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고 여러 선입견이 만연해 있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이주민들이 직접 봉사활동을 하고 지역에 기여하는 모습을 보이며, 김해지역 주민들이 이주민에게 갖는 부정적 시선을 긍정적으로 바꾸기 위해 점진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김해 한국외국인인권보호법률위원회 경남지부
055-339-5457



대법륜사 경내에서 한국외국인인권보호법률위원회 경남지부 현판식을 하고 있다.

스리랑카 이주노동자 '안제나'에게 희망을

광주 아시아밝음공동체(대표 도제스님)는 광주시 하남공단 인근 놀이터에서 시설물 노후로 인한 낙상사고를 당해 뇌손상을 입은 안제나(남, 30)씨에게 지난 3월 19일 생명나눔실천본부에서 후원받은 병원비 100만원을 전달했다. 생명나눔에서 이주민을 위한 병원비 후원 소식을 접한 아시아밝음공동체 양홍숙 간사가 발로 뛴 결과다.

이날 안제나씨는 "한국에서 많은 분들에게 걱정과 위로를 받아 마음이 따뜻하다. 치료를 더 열심히 받아서 건강하게 퇴원하고 싶다. 많은 도움을 주신 도제스님과 생명나눔실천본부에 감사드린다."라고 인사를 전했다.

안제나씨는 뇌수술을 마치고 현재 광주첨단병원에서 입원 치료중이다. 입원비 마련을 위해서는 안제나씨에게 도움의 손길이 절실하다.

광주 아시아밝음공동체 062-236-0102
후원계좌_ 광주은행 019-107-329128
(예금주: 아시아밝음공동체)

